

The Year of Three

Ferdinando Frega

GILLETTE: 셋의 해 — 제2막

한 사람의 삶에서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잊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— 감정은 기억되지 않고, 그 순간에 살아질 뿐이다.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들이다.

5월 29일 그날 아침, 나는 레조칼라브리아 상공회의소 2층에 나타났다. 나는 스물여덟 살이었다. 한 여자가 나를 맞으며 자신을 회장의 비서라고 소개하고, 입구는 아래층이라고 말했다 — 아마 내가 길을 잃은 모양이라고.

사실 저는 상업 대리인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곳에 소집되었습니다. 여기 전보가 있습니다.

어디 봐요. Frega Ferdinando 씨, 5월 29일 오전 9시 30분 소집 — 그런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. 아마 다른 Frega 씨를 말한 거겠죠. 아버님이신가 봐요. 당신은 너무 젊어요. 이건 실수일 거예요. 신분증 좀 보여 주세요.

그녀는 확인했고, 10분 뒤 회장을 직접 모시고 돌아왔다. 회장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— 이탈리아 대리인 위원회에서 가장 젊은 위원이었다.

비서는 아직 죽지 않은 상처 입은 들소를 바라보듯, 어디부터 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. 정신을 차리자 그녀가 말했다. Frega 씨, 죄송하지만 — 정확히 무슨 일을 하세요?

“씨”라고 불러 주셔서 감사하지만, 저는 중학교까지만 마쳤고 졸업장도 없습니다. 저는 면도날을 팝니다 — 소매로요, 아직 도매도 아닙니다. 저더러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군요.

그럼 왜 여기에 임명되신 거죠? 그리고 누가 임명했나요?

저도 똑같이 자문해 봤습니다. 2000년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한 분이 제게 이런 장난을 치기를 좋아하거든요. 저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.

잠깐만요 — Confcommercio Italia 전국 위원회에도 계시네요. 그것도 그쪽에서 온 거군요. 그런데 Gillette 면도날만 파신다고요?

네, 그렇습니다. 소매만 합니다. 하지만 언젠가 제가 그것을 만들어서 더 넓은 지역에 도매로 판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

2000년 전의 그 동료분께 여쭤볼까요?

아하하하하하.

회의가 시작된다. 우리는 열두 명이다. 회장이 정해지고, 서기, 위원들, 회계가 정해진다 — 그리고 역할 하나가 남는데, 모두가 나를 바라본다. 홍보 담당.

나는 사양한다. 나는 그런 일에는 한 번도 소질이 없었다.

Ferdinando